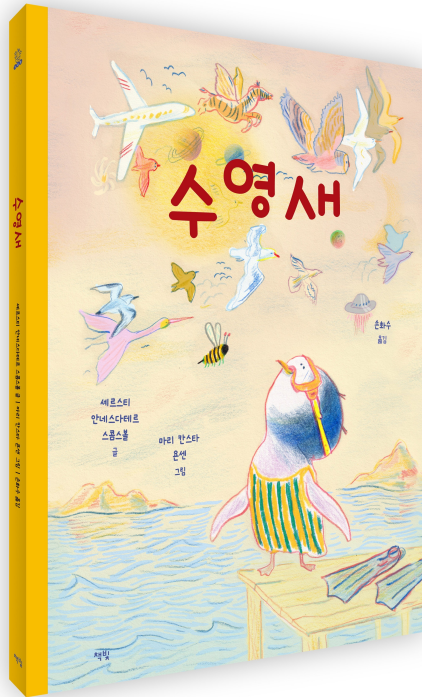


## 『수영새』 독후 활동지



세르스티 안네스다테르 스킴스볼 글 | 마리 칸스타 운센 그림 | 손화수 옮김  
책빛 | 60쪽 | 초등1~2학년 | 모두를 위한 그림책 100

“

“난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성장 그림책

”





#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1. 엘라는 처음에 왜 수영을 배우기 싫어했나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 보세요.

-----  
-----

2. 할머니는 엘라에게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 주었어요.  
다음 일이 일어난 순서를 바르게 번호로 써 보세요.

- ( ) 물에 발을 넣고 천천히 바다로 들어간다
- ( ) 물 위에 몸을 편하게 띄워 본다
- ( ) 물속에서 숨을 참고 들어가 본다
- ( )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물장구를 친다

3. 엘라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무서운 생각 대신 재미있는 것들을 떠올렸어요.  
다음 중 엘라가 떠올린 것들을 모두 골라 보세요.

- 무서운 바다 괴물
-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 물속에 있는 악어
- 가을바람에 실린 나뭇잎
-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

4. 엘라의 성격을 3가지 단어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5. 엘라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기쁘게 소리쳤어요. 엘라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

”

\_\_\_\_\_

## 활동2

# 내 마음속 상상괴물

바다를 알기 전, 엘라는 바다를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는 상어와 괴물 같은 무서운 것들이 가득할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를 따라 한 걸음씩 바다에 들어가 보자,  
엘라가 만난 바다는 생각과는 달리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었어요.

1. 왼쪽 그림은 엘라가 바다를 알기 전, 상상 속으로 그려 보던 바다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엘라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 경험하며 본 실제 바다의 모습입니다. 두 바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엘라가 본 것, 엘라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두 바다를 비교해 보세요.

-----

-----

-----

-----

2. 우리는 왜 가 보지 않은 곳, 겪어보지 않은 것이 무섭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

3. 여러분도 엘라처럼, 아직 가 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것을 막연히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나요?

- 그곳은 어디였나요? (학교, 학원, 병원, 비행기 등등)

-----

- 그때 몸이나 마음은 어땠나요?

-----

- 그곳에 실제로 가보았을 때, 내 상상과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 다른 점

-----

- 비슷한 점

-----

4. 엘라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꼈지요.

여러분은 그곳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꼈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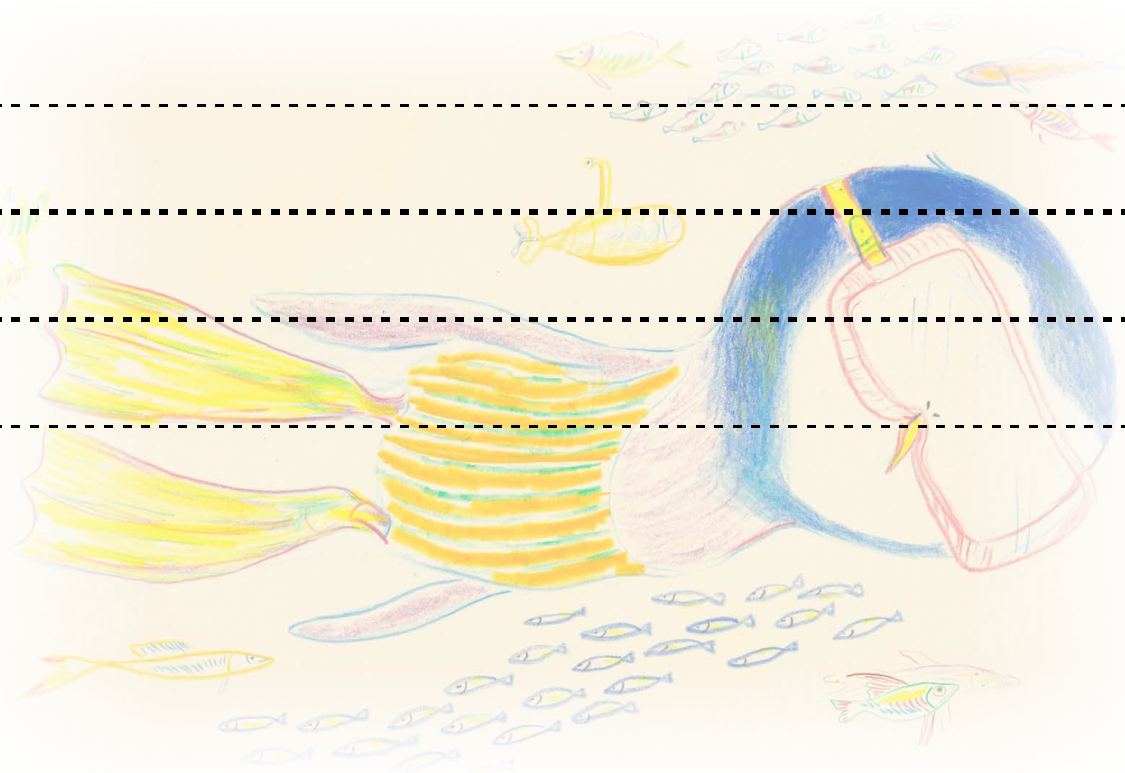
-----

-----

-----

-----

-----



5. 지금 나에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가기 싫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수영 배우기나 해외여행처럼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치과나 학원처럼 어떤 장소일 수도 있지요.  
그중 한 가지를 떠올리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그곳은 어디(무엇) 인가요?

-----

- 내가 좋아하는 것을 3가지 이상 써 보세요. (예: 사탕, 놀이터, 게임, 친구, 구름 등)

-----

- 이제 그 두려운 곳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예시) 치과 → 사탕 냄새 나는 달콤한 공간 / 학원 → 친구들과 게임하는 놀이터 / 수영장 → 구름 위를 동등 떠다니기



-----

- 이제 눈을 감고 그곳을 내 상상으로 꾸며보세요. 그리고 아래를 채워 보세요.

그곳은 이제 \_\_\_\_\_ 같은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_\_\_\_\_ 이 보인다.

나는 그곳에서 \_\_\_\_\_ 을/를 하게 된다.

- 6. 두려워하던 일을 멋지게 해낸 나를 떠올려 보세요.

상상 속에서 그곳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 보고, 짧은 글로 표현해 보세요.

-----

-----

-----

## 활동3 바다를 가르쳐 준 사람

엘라의 할머니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싫어하는 엘라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며,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줍니다.

믿고 기다려 주는 태도는 누군가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이러한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책 속에서 할머니가 엘라를 믿고, 기다려주고, 도와준 내용을 찾아 3개 이상 써 봅시다.

책에 있는 내용	도와준 방식
“벤치에 있는 오리발을 신으렴. 너도 나처럼 큰 발을 가질 수 있단다.”	엘라가 자신처럼 큰 발을 가질 수 있도록 오리발을 주었어요.

2. 다음 중 ‘기다려 주는 태도’에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왜 아직도 못 해? 빨리 해!”
- ②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여기 있을게.”
- ③ “그건 네가 못하는 거야.”
- ④ “그냥 내가 해 줄게.”

3. 여러분이라면 엘라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나요? 한 가지를 떠올려 써 보세요.

---

4. 나에게도 엘라의 할머니처럼, 내가 잘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며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 누가:

-----

•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

• 그때 기분:

-----

5. 아래 상황을 읽고, 더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번호에 동그라미를 해 보세요.

상황1: 친구가 문제를 풀다가 멈춰 있다.

- (1)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며 답을 알려 준다.
- (2) "힌트를 하나 줄까?" 하며 스스로 생각하게 돕는다.

상황2: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계속 넘어진다.

- (1) "내가 뒤에서 잡아 줄게." 하며 같이 연습한다.
- (2) "그만해, 위험해." 하며 못 하게 한다.

상황3: 친구가 자기 차례인 발표를 망설이고 있다.

- (1) "빨리 해야지!" 하고 재촉한다.
- (2) "넌 잘 할 수 있어!" 하고 작은 목소리로 응원해 준다.

상황4: 친구가 그림을 그리다 멈췄다.

- (1) "어떤 걸 그리고 싶어?" 하고 생각을 물어본다.
- (2) "이렇게 그리면 더 예뻐." 하며 대신 고쳐 준다.



6.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엘라의 할머니처럼 생각해 봅시다.

• 누구인가요:

-----

•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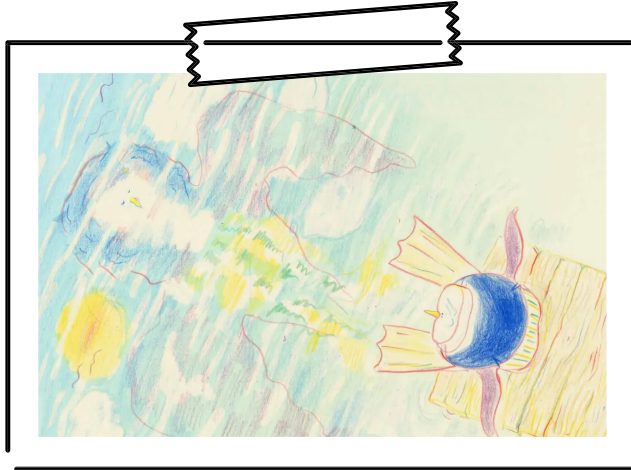
•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나요:

-----

-----

# 나 발견하기

엘라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날개를 펼친 능름한 ‘수영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새는 다름 아닌, 새로운 바다의 세계를 마주한 엘라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 새로운 것을 해 보면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나는 이럴 때 멋지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낀 적이요.

어디에서:

-----

무엇을 하다가:

-----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요:

-----

새로운 나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

2. 처음 해 보는 일을 하면, 왜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3. 새롭게 발견한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예: “너는 생각보다 훨씬 용감해!”)

## 활동5 다른 그림 찾기

책 속 그림과 다른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위, 아래 그림 각각 6곳입니다.



# 다른 그림 찾기 정답



# 해답

## <활동 1: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1. 상어, 해파리 같은 생물이 있어서, 물속에 빠질까 봐, 바다는 알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2.
  - ( 1 ) 물에 발을 넣고 천천히 바다로 들어간다
  - ( 2 ) 물 위에 몸을 편하게 띄워 본다
  - ( 4 ) 물속에서 숨을 참고 들어가 본다
  - ( 3 )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물장구를 친다
3.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가을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4. 상상력, 호기심, 용감
5. “난 날고 있어!”

## <활동 2: 내 마음속 상상괴물>

1. 왼쪽 바다는 엘라가 무서워서 상어와 괴물 같은 위험한 것들로 가득하다고 상상한 바다입니다. 엘라는 이곳에서 무섭고 두려웠어요. 오른쪽 바다는 엘라가 직접 들어가 보니 물고기나 조개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바다입니다. 엘라는 이곳에서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2. 우리는 잘 모르면, 머릿속에서 더 무섭게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 가 보지 않은 곳은 실제보다 더 무섭게 느껴져요.

## <활동3: 바다를 가르쳐준 사람>

1. “구름도 물로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니?” / 엘라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여기 물안경을 쓰렴.” / 엘라가 물속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물안경을 주었어요. “엘라, 잘한다!” / 엘라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칭찬해 주었어요.
2. ②
3. 엘라가 좋아하는 하늘 이야기를 같이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게 도와주고 싶어요.
4. 나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글씨를 천천히 써도 괜찮다고 말해 주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5. (2), (1), (2), (1)
6. 저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는 줄넘기를 잘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줄넘기를 배웠는데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